



부활의 아침

왕 죽나비가 있습니다. 고치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2주간 고치 안에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고치 안에서 애벌레는 매일 변화했겠지만... 그러나 하룻 밤새 고치는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햇살이 밝았습니다.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태양이 떠올랐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분명 오늘은 새롭게 단장한 태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밤새 변한 탓일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전보다 특별한 은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기도를 마친 후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절은 저에게 새로운 선물이 매일 아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순절 명상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우님들이 몸소 만나셨던 주님을 특별하게 만날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40일간을 지내 왔습니다. 40일의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교우님들의 아픔과 함께한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우님들의 아픔은 곧 주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픔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아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0일 간 긴 시간을 보낸 지금 왠지 새로운 은혜가 충만해 있음을 느낍니다. 작은 부활을 체험한 듯합니다.

작은 부활을 체험한 우리들에게 태양은 달라 보였는데 정작 영원한 부활을 체험하게 되었을 땐 어떨까요? 영원한 부활의 날이 오기 전까지 작은 부활들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영길 목사 -

4월호차레

- 부활의 아침
- 당회 소식
- E.C.C 건축 소식
- E.C.C 기금 모금 위원회 소식
- 니카라과 단기 선교 소식
- 사회 정의 위원회: 아시아 인권 가정 상담소
- 한국 문화 축제
- 성경과 문학 : Joseph Heller 의 Catch-22
- 연변 소식: 의망촌의 봄
- 성 금요일 음악 예배
- 웨마의 밤 "3세대 가정"
- 여선 교회 소식
- PCUSA 이민 사역 현황
- 새 교우 환영반 소식
- KCB 갤러리
- 알림 : 교회 새웹사이트 오픈



Ash Wednesday



Good Friday

1.총회 Presbyterian Investment & Loan Program(PILP)에 신청한 160만불 융자금에 노회의 이사회에서 통과되어 총회에 상정중입니다. 또한 노회에서 32만불 CD를 5년간 PILP에 우리 교회를 위해 지정 정기 예금했습니다.

2.김동광(Paul Kim) 전도사(본 교회에서 1994-95 임시 담임 목사로 시무하셨던 김종일 목사님의 아들)를 노회에 목사 후보(Candidacy)로 추천하였습니다.

ECC 소식

ECC 건축위원회에서는 현재 General Contractor 선정을 위한 건축 입찰공고 내역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위해 외부 consultant를 고용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를 위해 변호사 Mary T. Feeney(Bowditch & Dewey의 Partner)를 고용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보고드릴 특별한 진척 상황은 없으나, 건축 설계 세부 디자인은 100% 끝난 상태입니다.

다. 건축 시공 날짜는 5월말이나 6월초 예정이며, 건축 입찰 진척에 따라 곧 결정이될 것입니다. PC(USA)에서의 용자 신청이 잘 진척이 되고 있으며, 보스톤 Presbytery 에서도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용자 보증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General Contractor 선정 및 이 모든 건축 과정이 예정된 시간안에, 책정된 예산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교인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CC 건축 기금 모금 소식

성전 건축을 위한 시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잠시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건축 모금을 위한 campaign, 그리고 그로인한 성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 되어져야 할 모금 campaign 등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단기간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의 목표액이 지금은 거의 반정도만 목표액에 다다른 상태이며, 이를 위한 기도 약정한 가정은 22가정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모금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축 시공날은 어느덧 한달여 남짓만 남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전 건축 사역에 있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너무 앞선 것은 아니었다 하는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약해지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 놓으며 그 분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나의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은 더욱 더 절실함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충족은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허락하시리라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우리의 기도 가정들이 좀 더 늘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간절히 주님의 전 건축을 열망했던 그런 간절함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건축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고야만 것처럼...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작은 자들이 많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만두 판매를 통해 모금된 액수도 액수지만(순수익 \$3,500-단일 품목 최다 모금) 눈길마다 않고 뉴욕까지 운전해서 이 일을 성사시킨 노고들을 생각하며, 지금은 이렇게 특히 건축에 대한 처음의 열정이 조금씩 식어져 가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다시금 우리의 건축에 대한 열정을 깨워줄 그러한 작은

메아리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이 큰 일을 이루게 해 주시고, 주관해 주실 주님께서 피곤해하는 우리를,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위로해 주심을 고대하며...

3차 모금 목표액	\$ 600,000
3차 모금 현금액	\$ 189,006
3차 모금 약정 잔액	\$ 99,580
추가 모금 잔액	\$ 311,414
기도 약정 가정	22 가정

2007년 니카라과 단기 선교 소개

박신영 집사

올 해로 8번째 맞는 중남미 단기선교 프로그램은 보스톤 한인교회의 중요한 선교활동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풍요로운 미국 생활에서 눈을 돌려 어려운 지역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 알지만 잊고 지내는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중남미 지역은 열악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이 절실한, 그러나 동시에 선교적으로는 활짝 문이 열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중미의 니카라과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페루와 니카라과 단기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는 섬김과 선교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선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은 선교는 소수의 특별한 은사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기 선교 여행으로 직접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느끼는 것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것은 겨우 씨뿌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더욱 온 교회가 참여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기도하는 선교의 사역이 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이동홍 선교사님과 전구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2007년 단기선교팀이 형성되어서 지난 3월부터 선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가 가장 큰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스톤 한인교회와 프리메라 이글레시아 스페니쉬 교회의 연합사역이 해가 갈수록 견고해지고 받

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징적인 것은 Youth Group의 활발한 참여입니다. 현재까지 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생한 현장을 체험한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선교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단기선교팀을 위해 성도님들의 다각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매월 한 차례 있는 훈련을 위해 식사준비로 봉사해 주실 분들, 다가올 바자에 봉사하시고 후원하실 분들, 그리고 7월말에 있는 약을 포장하는 일을 도와주실 분들... 이 모든 교회의 후원과 헌신이 바로 온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가 되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풍요롭게 하리라 믿습니다.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1. 선교지역: 니카라과의 여러지역 (마사야, 마나구아 오리엔탈 시장 무숙자 등)**
현지 선교사 : 이동홍 목사, 전 구 목사
- 2. 선교 여행기간: 2007년 7월 28일 (토) - 8월 4일 (토)**
- 3. 활동내용: 이/미용 봉사사역, 각종 노력 봉사사역(진행, 행정,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질서유지 등), 복음전도 및 교육사역, 의료사역, 치과사역, 안경사역, 무숙자를 위한 봉사및 섬김, 기타**
- 4. 2007년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 훈련 일정 (시간: 저녁 5시 : 9시) 3/24 (토), 4/21 (토), 5월 (미정), 6월(미정), 7월(미정), 7월말 약포장(미정), 7 / 2 2 파송예배(주일)**
- 5. 연락처**
최연일 위원장, 전화: 781-326-2916 e-mail: drschoe@aol.com
박신영 총무, 전화:781-861-9690, e-mail: sypark1989@verizon.net

2007 한국문화축제가 5월12일 토요일에 본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문화 보급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본 교회에서 시작된 한국문화축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고, 한국문화축제를 지역사회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지난 4회(2005년) 때에는 타민족과의 어우러짐을 주제로 유대인들의 문화와 연계한 문화축제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우리 교회의 한국문화축제는 이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보스톤 지역 한인사회의 자랑거리로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큰 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이번 5월에 열릴 한국문화축제의 특징은 ‘축제분위기의 부각’과 ‘전문 연주인들로 이루어진 수준 높은 무대 구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극대화 하기 위해 행사를 1부(교회 앞 야외무대, 오후 3:00-5:00)와 2부(교회본당, 저녁 7:00-8:30)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1부는 기존에 실내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교회 앞에 설치될 야외무대로 옮김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보다 가깝게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축제분위기’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사물놀이, 북춤, 태권도 시범, 전통 혼례 등을 야외무대에서 시연하고, 한국 전통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booth도 한쪽에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다 자유롭게 한국문화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부는 전문 연주인들로 구성된 팀의 공연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장으로 삼고자 하며, 이를 위해 뉴욕한국국악원으로부터 국악 연주팀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게 된다. 또한, 지난 4회 한국문화축제의 연장선상에서 타민족의 문화와 연계하는 순서로 Irish 문화(bagpipe 연주, 전통춤, 노래)가 2부 공연의 한 부분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제 5회를 맞는 한국문화축제. 한국의 전통문화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웃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우리의 이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제 5회를 맞는 한국문화축제. 한국의 전통문화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웃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우리의 이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아시아인 가정 상담소 (ATFADV)

Asian Task Force Against Domestic Violence

사회정의위원회 이경의 권사

본 교회 사회정의 위원회에서는 이번 한올타리에 ‘아시아인 가정 상담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아시아 여성들을 위한 유일한 쉼터이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 기관에 현재 한국인 직원으로 김은 선생님이 한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19년 전에 세워진 이 기관은 많은 응급, 위기에 처한 전화를 받아 가정 폭력으로 도움을 호소하는 아시아 여성들을 돕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한국 여성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한인 여성들이 적극 동참하기를 원하며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시아인 가정 상담소에서는 “절대 비밀보장”이 철칙이어서 경찰이나 이민국으로 개인 자료가 넘어가지 않으므로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될지 모른다거나 본인이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 추방을 당할지 모른다는 등의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필요에 따라 14일간 거처할 수 있는 쉼터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90일동안 체류도 가능하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보호하는 동시에 자녀들의 학교 출석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더 오래 거주처가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동안 거주 가능한 보호처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여성들에게 침식 제공뿐만 아니라 어포터블 하우징등 거주지를 위한 서류준비, 직업훈련, 접근 금지 명령, 이혼, 양육권, 이민 등과 같은 법률상담 및 알선, 위기 중재 및 안전을 위한 계획 준비도 함께 해주고 복지 이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폭력을 비롯해서 정신적인 폭력 그리고 가정에서 다양한 삶의 위기를 맞고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한인 변호인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일하고 있음을 김은 선생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인 교회들을 통해 가깝게 연락을 취하기를 원하며 기부금, 봉사활동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인 가정 상담소는 운영 자금의 65%가 정부 보조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특별 이벤트, 기부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은 617-338-2355로 연락하면 한국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과 문학 (16)

Joseph Heller의 Catch-22

박진음 집사

주간잡지 Time의 4월 2일자판의 표지기사는 Why We Should Teach The Bible In Public School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서양 문화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없으니 공립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좋으나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미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등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에는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예로 든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Babel, Superman, The Matrix, Pulp Fiction 등의 영화도 있고, Spamalot이라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있고, 헤밍웨이의 소설인 "노인과 바다" 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도 있고, 링컨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도 있습니다.

타임지의 기사가 예로 든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미국 중학생들의 필독서 중 하나라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Catch-22는 미국 고등학생들의 필독서 중 하나입니다. Catch-22만큼 웃긴 소설도 별로 없고, 이 작품만큼 전쟁의 잔인함과 우매함을 예리하게 파헤친 작품도 드물 것입니다. 또한 It was love at first sight라는 첫 문장도 아주 유명합니다.

요즘 영어표현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일컬을 때 catch-22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2차대전에 참전한 미군 폭격기 조종사들이 목숨을 건 폭격 임무를 꺼리는 것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He would be crazy to fly more missions and sane if didn't, but if he was sane he had to fly them. 정신이 이상한 조종사는 폭격임무에서 제외되는데, 폭격임무를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해서 미친 것이지만 미치지 않은 조종사는 비행을 해야되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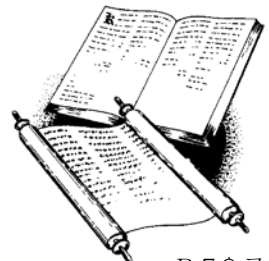
등장인물 중에 Major Major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령(major)인데 이름이 또한 Major라서 Major Major가 됐습니다. 이 사람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을 인용한 것으로 가득차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He was told to honor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he honored his father and his mother. (2) He was told that he should not kill, and he did not kill, until he got into the Army. (3) He turned the other cheek on every occasion and (4) always did unto others exactly as he would have had others do unto him. (5) When he gave to charity, his left hand never knew what his right hand was doing. (6) He never once took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in vain, (7) committed adultery or (8) coveted his neighbor's asset. (9) In fact, he loved his neighbor and never even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1)부터 (9)까지의 번호는 제가 붙였습니다. 그 번호와 인용된 성경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용된 성경말씀 모두가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1)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12. (2)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찌니라. 출애굽기 20:13. (3) If someone strikes you on the right cheek, turn to him the other also.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마태복음 5:39. (4)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12. (5) But when you give to the needy,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6:3.



P.7으로 계속

희망촌의 봄

봄은 정녕 남녘의 꽃 소식과 함께 오는가
못내 아쉬운 꽃샘 추위 눈보라가 가끔은 범석을 떨어도
오고 있는 봄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야심찬 겨울 산행 손님들이 한국에서 또한 미국에서
이 겨우네 찾아 온다는 백두산-이도백하 강원도 식당 소식
Olympic 서막인가 하늘의 기운인가
오는 손님도 맞는 주인도 뜨겁기는 마찬가지라
서로가 조면인데 그 열기가 충천하여 범상치 않습니다.

석탄불에 데운 평방(平房)에서
여섯달 매서운 동장군과 한바탕 씨름을 끝낸 희망촌 사람들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처럼 도약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본부 건물 이름으로 짓고 있는 꿈의 전당
벽돌 쌓기와 슬라브 공사를 마친 채 서툰고 미숙한 신부처럼
막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먹거리 입을 거리 잘거리가 없어 생겨난 마을
추위와 배고픔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어머니의 품안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아직 아직은 동토의 계절이라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봄은 오고 있는데
남은 시간이 짧아 더욱 초조합니다.

그래도 불어올 따뜻한 봄바람 그윽한 향기 그리고 만발할 꽃 그 꽃들
꿈에 적고 환상에 젖어 마냥 행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 생명이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과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북녘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 연변희망촌 선교 사역을 위하여 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금요일 음악예배

지난 성금요일(4월 6일)에는 영어 회중과 더불어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Garry Parrett 목사님의 설교와 2부 찬양대의 모짜르트의 진혼곡 합창으로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

지휘 : 변화경 장로, 오르간 : 손민수 교우
소프라노 : 조유미 집사, 카운터 테너 : 김민상 교우
테너 : 박진욱 집사, 베이스 : 김무섭 교우

1. 진혼곡
2.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3. Sequenz
 - 진노의 날
 - 나팔소리 진동할 때
 - 위대하신 왕
 - 기억하소서
 - 심판날에
 - 눈물의 날

모짜르트(Mozart)의 진혼곡(Requiem)이란?

레퀴엠이란 죽은 자를 위한 카톨릭 미사곡으로 우리 말로 진혼가로 번역할 수 있다. 서양 역사상 다양한 레퀴엠이 작곡되었지만 모짜르트의 레퀴엠은 그가 작곡한 가장 훌륭한 종교 음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잘 알려져있고 레퀴엠 하면 모짜르트의 그것이 떠오를 만큼 후세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작곡된 동기는 모짜르트 생애의 마지막 해인 1791년 여름 빈의 폰 발제그-스투파흐(von Walsegg-Stuppach, 1763-1827) 백작이, 젊은 나이로 죽은

그의 부인을 위하여 ‘레퀴엠’을 작곡해주길 의뢰를 받은 데 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레퀴엠,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모짜르트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말았다. 1791년 최후의 대작 <마법의 피리>를 완성한 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한 모짜르트에게 어느날 희색빛 망토를 입은 한사람이 나타나 자기주의의 레퀴엠 작곡을 부탁하였다. 쇠약해진 모짜르트는 이것이 다른 세계, 곧 죽음의 사자로부터 온 계시라 생각하여 작곡에 몰두했고, 가끔 실신하기까지 했다.

그 해 12월 4일, 모짜르트는 레퀴엠의 악보를 병상에 가져오게 하여 옆에 있는 세 친구와 함께 Lacrimosa(눈물의 날: 이번 성금요일 합창 마지막곡)를 스스로는 알토 파트로 노래하고 친구들에게 다른 파트를 부르게 한 후 이미 곡을 완성할 수 없음을 깨달은 모짜르트의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뒤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계속 완성할 것을 지시한 후, 벽 쪽으로 향할 후 잠든 것처럼 누웠고, 그로부터 얼마 후 자정이 55분 지난, 12월 5일 위대한 음악가는 숨을 거두었다.



P. 5에서 계속

(6)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20:7. (7)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간음하지 말찌니라. 출애굽기 20:14. (8)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or his manservant or maidservant, his ox or donkey, or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 출애굽기 20:17. (9)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출애굽기 20: 16.

요즘 미국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아무 것이나 말해보라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http://www.msnbc.msn.com/id/17407363/site/newsweek/> 에 가서서 여러분의 성경과 다른 종교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해보십시오.

쉐마의 밤

어떻게 사모가 되었냐구요?

김 태의 사모

“사모님은요, 어떻게 사모가 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한 후로,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사모로서의 소명이나 엄청난 체험을 한 것도 아닌데, 늘 성도님들은 '사모' 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인지 참 별스런 어떤 체험이나 간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제가 어릴적에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께서서는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는 자연스레 음악의 기초에 대한 모든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음악을 전공하게 되는 자연스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면서 늘 저는 화려한 오페라 가수를 꿈꾸어왔고, 그렇게 멋져 보이는 화려한 음악만이 최고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대학 2학년 여름에 특별한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합창단에서 지방교회 순회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날 어느 작은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노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골 작은 교회의 초라한 교회 음악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지 않은 교인들, 오래된 낡은 피아노... 그러한 모습이 쓸쓸하게 펼쳐 지면서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파오는지... '내가 가진 음악이라는 달란트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겠구나. 그래, 나에게 하나님을 위한 음악이 있구나' 하는 깊은 회개와 함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리라'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만났고 목사인 남편과 결혼까지 하는 용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내려가면 시부모님 두 분께서 매일매일 하시던 새벽기도와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성경을 마치 재미난 동화책처럼 술술 얘기해 주시는 아버님, 특히나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기도제목으로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은 살아가면서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다 새벽에 잠을 깨지 못하는 며느

리를 위해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를 불러 주시기도 하신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바램들이 하나 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물려주신 그 큰 신앙의 유산이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 다짐합니다.

쉐마의 밤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우리 네 식구가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음 속으로만 하던 기도를 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쏟아놓으며 눈물도 흘리고 지나간 사진들을 보면서 웃음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5년 여간의 보스톤 생활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따뜻한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 교역자들과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었고, 친자매처럼 사랑을 나누어 준 구역 식구들, 때마다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신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 힘든 미국 생활이 저희 가족들에게는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목회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리아 여선교회 소식

1. 지난 3월 2일(금)에 세계 기도회 모임을 본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3개의 교회에서 30여명의 여성 교우들이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2. 보스턴 장로교 여성모임이 4월 15일 오후 3시 본 교회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 50년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갖습니다. 많은 여성 교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3. 동북부 여성교회 연합수련회 및 정기총회가 2007년 4월 20일-21일 (금-토)에 스토니 포인트 센터(NJ)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김한나 집사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기도일 예배 - 김경애

지난 3월 2일 저녁 7시30분에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한미교회 여성 연합회(The Korean American Church Women United) 주최로 세계 여성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의 주제는 '주의 장막안에 연합하여'였으며, 올해는 이과수 폭포가 있고, 하프 뮤직으로 유명한 파라과이의 여성들이 특별 기도문을 작성하였다.

매년 3월 첫 금요일 저녁에 전세계 180여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 세계 기도일 예배는 1887년 미국 장

로교 국내 선교부의 의장이었던 Darwin James 라는 신도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으로 새 삶의 터전을 갖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기도의 모임이 오늘날 180여개국 이 함께 하는 세계 기도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 한인교회의 여성들은 1979년 이 일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미국 교회 여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1984년에 자체의 연합회가 조직되었고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2000년도부터 보스턴 지역의 기독 여성들이 함께 모여 세계의 불우한 여성들이 쓴 기도문을 읽고 그들의 문화와 정치적인 배경때문에 겪는 어머니, 또는 여성으로서의 아픔을 호소하는 기도문을 읽어왔다.

이번 예배의 설교를 맡아주신 윤경문 전도사님은 파라과이 여성들의 고충과 현실을 소개해주셨고 하나님의 장막아래 세계의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사랑의 끈으로 매여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모습을 펼쳐가자고 말씀하셨다. 이날 예배시에 모금된 헌금은 노인 복지, 고아 선교, 여성 쉼터, 아마존 선교 및 뉴욕 출신 남미 여성교사들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

“오, 하나님, 당신의 장막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의끈으로 우리를 잡아매소서. 아멘”

에스더 여선교회 소식

1. 에스더 여선교회에서는 격주로 목요일 저녁 7시에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기도모임에서는 세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마침 목요일 저녁이 실제 예수님 당시에서 세족식을 거행하신 날이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 4월 29일 여선교회 주최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초청 설교자는 김정 목사님이십니다.
3. 5월 13일 어머니 주일 각 구역/기관 찬양제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 소식

본 교회 청년 2부가 뉴햄프셔에 있는 Alton Bay Christian Conference Center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4월 6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서는 정신찬 목사님(뉴 햄프셔 장로교회 청년부

담당)을 모시고 ‘그리스도 제자란’이란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이민 사역 현황

Route I-95 Corridor Presbyterian Immigrant Ministry Dialogue를 다녀와서

윤 경문 전도사

3월 21-23일 필라델피아에서 동북부 (Route I-95) 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 사역을 위한 세미나가 Route I-95 Corridor Presbyterian Immigrant Ministry Dialogue란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필라델피아 노회에서 주관으로 열렸는데, 여러 노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민자들 인권에 관한 관심과 이를 위한 사역에 관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참석하여 미국장로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한 다른 인종의 이민자 교회들의 현황이 어떠한 지에 관해 접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 장로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 사역 소개가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민자들의 역사를 슬라이드를 통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현재, 북동부의 이민자들의 수가 눈이 띄게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민자들 교회들은 그들에게 맞는 형태의 사역 방안들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는 기존의 사역 패라다임이 초기 이민자들을 위한 사역에 맞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민자들에게 맞는 패라다임의 사역들을 강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장로교에서는 최근 이민자들에 관한 의회법 채택에 관한 관심을 갖고, 이민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법적 이슈들에 관심하며, 총회 차원에서 지난해 이민자들 사역을 위해 "Office Of Immigrant Issues"를 신설하여 이민자들의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Presbyterian for Just

Immigration (PFJI)란 네트워크를 창설하여 이민자들 이슈와 프로그램, advocacy를 돕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스페니쉬 계열 이민자들의 교회들이 힘든 상황을 논의하며, 다른 교회들과의 파트너쉽을 맺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안들에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북동부 노회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민자 교회들을 돕기 위해 협력 (Partnership)과 지도자 훈련 개발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성장한 한국 이민교회들은 초기 이민자들의 교회들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제 한국 교회들은 오히려 앞서간 이민 교회들로서 타이민자들 교회들을 위한 모델로서 공헌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및 광고

1. 해바라기 유년.초등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사용할 랩탑 컴퓨터를 기증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던 랩탑을 기증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 해바라기 유년.초등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함께 섬기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은 김선희 전도사님께 연락바랍니다.
2.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위해 사역해 주실 전도사님이 새롭게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를 섬기시게 된 분은 John Chung 전도사님이신데, 현재 Gordon Conn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M. Div 과정에 계십니다. 4월 8일 당회의 인준이 마쳐지면 공식적으로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시겠습니다.

새교우 환영반 소식

-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새교우 환영반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교우 환영반에 참석하신 교우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길람 장로님은 한국 교회에서 시무하셨던 장로님으로 이성숙 집사님의 사촌 형부되십니다 (중앙 2구역).
- 이현민/김송이 교우께서는 Tuft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가르치시고 계시며 렉싱턴에 거주하십니다 (북서1구역).
- 김은경/박창진 교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주하셨고, 아내는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고, 남편은

Sun Microsystem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 이진아 교우는 보스톤 시내에서 델리샵을 운영하고 계십니다(중서4구역).
- 여영동/설명진 교우님께서서는 2명의 아이들 교육을 위해 보스톤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들 새교우님들은 3주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시고, 4월 14일(토) 박진흙/윤희경 집사댁에서 환영 파티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 오신 교우님들을 환영하며, 환영 파티를 베풀어 주시는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구역 성경공부 인도자 모임

4월 첫주 김동숙집사님의 특별하신 배려와 수고로 구역 성경공부 인도자 교육이 활성화되어 거의 모든구역의 인도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열심으로 교육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수고해 주신 김동숙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쉐마의 밤이란?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중 첫번째가 3세대가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3세대가 신앙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귀한 축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담겨져 있는 소망입니다.

격월로 열리는 우리 교회의 '쉐마의 밤'은 3세대가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한 기도와 축복을 나누며, 찬양과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매번 한 가정을 초대하여 3세대의 신앙 이야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의 간단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초대된 그룹들

의 특순이 있고, 이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을 가지며, 가정, 교회, 이웃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3세대가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월 쉐마의 밤에는 배요한목사님 가정이 신앙간증을 하여 주셨고, 해바라기 초등주일학교 4학년 학생들의 특순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중 상록기도회를 위한 기도와 5월에 열린 한국문화축제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제직수련회: 박용규 목사님을 모시고...



• 제직수련회에 참석하여 강의를 들으시는 제직들



• 3월 31일 쉼의 밤: 어린이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



• 2부 찬양대 : 이혜승 집사 베이비 샤워



• 4월 6일 성금요일 예배: 찬양대의 [레퀴엠]



• 3월 새교우 환영반을 마치며....

알림

새 교회 웹사이트: 홍보위원회의 오랜 노력 끝에 교회 웹사이트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어 4월 8일부터 오픈되었습니다. 이전 웹사이트와 크게 다른 점은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교회 각 부서가 함께 참여, 신속히 소식을 나눌 수 있게 게시판 형식을 사용한 것, 그리고 쉽게 사진들을 올릴 수 있게 된것 등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의 사역과 행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슬라이드쇼도 실려있으며, 각 구역들의 모습과 소개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각 부서와 교회 모든 식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 나가길 바랍니다(www.kcboston.org).

